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금 '본궤도'

도내 서민경제 회복의 불씨

지금 시작 1주일째... 읍면동 주민센터마다 긴 줄

소상공인들 "고객 발길 다시 이어져... 매출 오를 듯"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21일부터 시행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정책이 본격 궤도에 오르며 서민경제 회복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도내 각 시·군의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신청 첫날부터 주민들이 몰려 일부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100여 명 길게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 접수가 이뤄지고 있으며, 28일부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완료되면 보다 실질적이고 활발한 소비 촉진이 기대된다.

실제 일선 현장에서도 민생 회복 소비 쿠폰에 대한 기대감은 높았다.

전주시 효자동에서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서모(70) 씨는 "아직은 손님이 많지 않지만, 다음 주부

터 본격적으로 소비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그간 가게 운영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이번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마중물이 되어 경제가 돌기 시작할 것 같다"고 큰 기대감을 표했다.

지역 상권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전주의 한 상인은 "결제금액은 아직 크지 않지만, 고객들의 발길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소비심리가 살아나면 매출도 점차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원과 관련한 일반 도민의 분위기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모두 이루어지면 소상공인과 서민 모두에게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이번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번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에서 참채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코로나19 이후 경기 불황과 탄핵정국에서 경제가 어려워져 지갑을 닫아 위축된 소상공인들의 경기 회복을 돕기 위한 민생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마련돼 서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민생경제과 담당자는 지난 24일 오후 6시 기준으로 52.8% 지급됐으며, 지급 금액은 1,885억 원이 지급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정책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경제가 살아나는 실질적인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민생지원금 지급액은 전북도의 경우 1차분이 3,577억원으로 국비 3,219억원과 도비 179억원, 시군비 179억원이다.

이제 민생 지원금 지원이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참채된 전북의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마중물이 되기를 도민 모두가 기대하고 있다./이만호 기자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선풍



전북 곳곳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주시 덕진구 세병공원을 찾은 한 시민이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선풍을 즐기고 있다.

(사진=뉴스1 제공)

휴가철 전북 해상교통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북자치도, 내달 10일까지 연안여객선 특별수송대책 추진

여객운임 지원·SNS 혼잡 안내 등 이용자 중심 서비스 강화

군산해수청 등 관계기관과 대책반 구성... 비상 시 신속 대응

전북특별자치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군산과 부안 지역의 연안 여객선을 이용하는 귀성객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상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25년 여름 휴가철 연안여객선 특별수송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이달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17일간 운영되며,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해양교통안전공단, 해운조합 등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수송대책반을 구성한다. 대책반은 여객선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접안시설 및 여객터미널의 안전과 청결 상태를 철저히 관리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원활한 수송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운항 관리 강화를 위해 출항 전후 화물 과적 여부, 고박 상태, 여객 편의

시설 등의 점검은 물론, 항해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아울러 선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과 선내 비상훈련도 실시하여 현장 대응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휴가철 관광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를 고려해 여객선 증회 운항을 통해 수송 능력을 확대하며, 임시 주차장 확보, 여객선 길찾기 서비스, 실시간 운항 정보 제공 시스템(PATIS), '내일의 운항예보' 운영 등 다양한 편의 제공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더불어 SNS를 활용한 실시간 터미널 혼잡도 안내와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된 예매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여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연중 '여객선 운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전국 일반 이용객은 여객선 운임의 50%를 지원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전북 도내 섬 주민은 실질적으로 단 1,000원만 부담하면 여객선 이용이 가능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향후 섬 주민의 교통권을 지속 보장하고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운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운임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도내 5개 항로에 3개 선사가 여객선을 운영하며, 하루 평균 1,040명, 총 1만7,630여 명이 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8월 2일에는 휴가철 중 가장 많은 2,000여명의 이용이 예상된다.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연안여객선 이용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사회적경제기업에 10억원 규모 융자 지원

도, 안정적 기업 운영·지속가능 성장 지원 위해

최대 1억원, 연 2.8% 이내 금리... 5년 분할상환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총 10여억원 규모의 융자사업을 시행한다.

도는 2025년 제2차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사업을 통해 전북에 소재한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8월 1일까지이며,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8월 말 최종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융자는 단기와 장기로 구분해 진행된다. 단기융자의 경우 최대 2,000만원, 연 2% 이내 금리로 1년 이내 상환 조건이며, 장기융자는 경영자금 최대 5,000만원, 시설자금 최대 1억원 한도로 연 2.8% 이내의 금리, 5년 이내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자금난 해소와 더불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회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북사회적경제기금 담당자(☎063-213-2246) 또는 홈페이지(www.jsecoop.or.kr)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는 2021년부터 사회적경제기금을 조성해 지금까지 44개 기업에 총 22억4,000만원을 지원해 왔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융자사업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확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주체들이 지역 내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건의안 채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사진)이 발의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채택됐다.



강동화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제헌절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기틀이 마련된 뜻깊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이 단순한 휴일 확대를 넘어, 헌법 가치 재확산과 국민 자긍심 고취라는 교육·문화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자주적 의회 전통을 간직한 전북의 정체성을 계승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건의안은 지역의회가 앞장서야 할 시대적 책무라고 했다.

/이만호 기자

본보 하계 정기휴가에 따라 8월 3일자까지 신문 쉽니다.

광복 80주년 특별전

빛을 담은

국가유산청
Korea Heritage Service

25.08.12 Tue — 10.12 Sun 덕수궁 돈덕전

항일 유산

THE RADIANT HERITAGE OF INDEPENDENCE